3부 권위와 자증 — 왜 믿는가

성경론 13편 성령의 내적 증거 · 확신은 어떻게 오나

오웬 5장 성령의 증거·전통·기적(1–3절, 7절 중심, 8절 일부) · 바빙크 6장 신앙(§130–155 가운데 '신앙과 그 근거'·'성령의 증언' 중심, 변증·경험·도덕 검토 일부) · 신앙고백서 1.5(1.4·1.6·1.10 참조) · 프레임 41장 확신 · 프레임 42장 사람을 통한 계시: 신적 증거('성령의 사역'·'인식론과 성령의 증거') · 신앙고백서 1장 1.5

> ❓ **그럼 믿어지는 건 결국 느낌이야?**

🧭 흐름 한눈에

신앙고백서 1.5는 먼저 성경이 스스로 넉넉한 증거를 지녔다고 말합니다. 그다음 “그러나”를 붙여, 온전한 확신은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결국 느낌'이라는 뜻이 아님을 보이려고 오웬은 먼저 성령의 증거가 아닌 것을 걷어냅니다. 사적인 음성도, 이유 모를 고집도 성령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어 오웬은 성령의 일을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죄로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주시고 설득하시는 일, 곧 눈을 여시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모든 사람 앞에 하시는 공적 증거입니다. 프레임은 이 구조를 '원인과 근거'로, 바빙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첫 원리로 받쳐 줍니다. 증거와 변증은 귀하지만 믿음보다 앞서지 않고, 경험·위로·느낌은 믿음을 뒤따를 뿐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확신은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열어 주신 눈으로, 말씀 속에서 이미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는 일입니다.

📜 절별 정리

📜 1. 고백서의 '그러나' — 증거는 넉넉하나 확신은 성령께서 (신앙고백서 1.5)

내용이 하늘에 속한 것, 가르침의 힘,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일치가 그것이고, 이것으로 성경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임을 넉넉히 증명합니다. 셋째, 고백서는 여기서 “그러나”를 놓습니다. 성경의 틀림없는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온전한 확신'은 이런 논증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떠난 새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말씀 곁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 문장이 두 극단을 함께 막습니다. 증거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생각과, 말씀 없이 성령만 따른다는 생각입니다.

1. 교회 증언은 존중으로 이끄는 출발점
2. 성경의 증거는 넉넉하나 확신의 마지막 원천은 아님
3. 온전한 확신은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4. 성령은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증언하신다
5. 증거주의와 열광주의를 함께 막는다

> **디모데전서 3:15**
>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 교회 증언의 가치
>
>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 **요한일서 2:20, 27**
> 성령의 기름부음이 신자를 가르치심 — 내적 확신의 근거 ◆기둥(고백서·바빙크 2:20·프레임 2:20-27)
>
> **요한일서 2: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
> **요한일서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 **고린도전서 2:10-12**
>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앎 ◆(고백서·바빙크 2:12·프레임 2:12-15)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14

성령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함 — 증거만으로는 부족 ◆기둥(오웬·고백서·바빙크·프레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사야 59:21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함께 그 백성에게 머묾 — “말씀과 함께”의 근거 (프레임 42장도 같은 구절로 보이는 곳을 듦. 번역본 표기는 '시편 59:21', 확인 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6:13-14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 ◆(고백서·바빙크 16:14·프레임 16:13)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경의 틀림없는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확신은 다른

“그것은 성령의 내적인 일에서 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증언하시는 일이다.” — 신앙고백서 1.5

📜 2. 성령의 증거가 '아닌' 것 — 귓속말도, 이유 모를 고집도 아니다 (오웬 5장 · 바빙크 6장 · 신앙고백서 1.6, 1.10)

“성령의 증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을 들으면 흔히 두 그림이 떠오릅니다. 오웬은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첫째, 성령의 증거는 성령께서 신자 한 사람에게 “이 책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따로 들려주시는 속 음성이 아닙니다. 그런 체험은 드물게 주장될 뿐이고, 주장되면 대개 곧 착각으로 드러납니다. 둘째, 왜 그런지 모르면서 목숨 걸고 붙드는 확신도 성령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런 확신은 전통이나 성장 환경만으로도 생기고, 헛된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빙크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성령의 증언은 개인의 사적인 조명도 아니고 새 진리의 원천도 아니며, 모든 세대 교회가 함께 겪어 온 공통의 증언입니다. 고백서는 이것을 조항으로 막아 둡니다. 성령의 새 계시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무엇을 더할 수 없고(1.6),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개인의 영적 주장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판결받는다는 것입니다(1.10). 바로 여기가 성경 밖의 '내적 빛'을 신앙의 근거로 삼는 열광주의와 개혁파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1. 성령은 '이 책이 말씀'이라 속삭이지 않으신다
2. 이유 모를 고집은 성령의 증거가 아니다
3. 그런 확신은 전통과 환경으로도 생긴다
4. 성령의 증언은 사적이지 않고 교회적이다
5. 성경 밖 '내적 빛'은 성경의 판결을 받는다

> **갈라디아서 1:8-9**
> 천사가 전해도 다른 복음은 저주받음 — 새 계시를 더하지 못함 (신앙고백서 1.6)
>
>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일서 4:1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 개인의 영적 주장을 검증함 (신앙고백서 1.10)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사야 8:20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비추어 보라 — 내적 빛도 경험도 말씀으로 잰다 ◆기둥(오웬 8:19-20·바빙크·고백서 1.8, 1.1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16:14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리심 — 조명은 새 진리의 원천이 아님 (바빙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2

거짓 계시에는 거짓 말과 거짓 영이 함께 있음 — 말씀과 영은 짝을 이룬다 (프레임 42장 각주)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 말씀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 오웬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증거가 아니다.” — 오웬

📜 3. 왜 성령이 필요한가 — 문제는 증거가 아니라 눈이다 (오웬 5장 · 바빙크 6장 · 프레임 42장)

성경의 증거가 넉넉하다면 왜 성령이 꼭 필요할까요? 오웬은 타고난 사람의 마음에 어둠이 덮여 있다고 답합니다. 이 어둠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확실히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잘못 판단합니다. 바빙크도 지성·마음·양심은 내용을 담는 그릇일 뿐인데 그 그릇이 죄로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은 증거가 모자라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마음에 뿌리박힌 일입니다.
프레임은 더 날카롭게 말합니다. 사람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고,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수건이 덮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자기 목적에 쓸 만큼은 알아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증거를 더 쌓는 일이 아니라 눈이 열리는 일입니다.

1. 타고난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본다
2. 어둠 속에선 선입견은 있어도 믿음은 없다
3. 불신도 증거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4. 성령 없이는 1%의 확신도 없다
5. 필요한 건 더 많은 증거보다 열린 눈

> **고린도전서 2:14**
>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여김 — 빛이 필요한 이유 ◆기둥(오웬·고백서·바빙크·프레임)
>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 **유다서 1:19**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로마서 1:18

불의로 진리를 막음 — 불신은 마음의 문제 ◆(바빙크 1:18 이하·프레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고린도후서 3:15

그리스도 없이 읽으면 마음에 수건이 덮임 (프레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마태복음 11:27

아들이 계시하시는 자만 아버지를 앎 — 이 지식은 선물이다 ◆(바빙크·프레임 41장)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어둠이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는 한, 그들은 말씀에 대해 선입견은 가질 수 있어도 믿음은 가질 수 없다." — 오웬

📜 4. 빛이 먼저, 열이 뒤따른다 — 눈이 열리는 일 (오웬 5장 · 바빙크 6장 · 프레임 42장)

오웬은 성령께서 마음에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영적인 빛을 주셔서 말씀의 진리와 위엄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둘째, 그 빛을 통해 비뚤어진 성향을 꺾고 마음을 설득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서로 맞물려 서로를 증언하는 것을 보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단맛과 능력을 양심으로 맛보는 영적 감각을

해를 보는 순간 해가 있음을 확신하듯, 거듭난 사람은 계시가 참됨을 '봅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새로워진 의지가 기꺼이 믿게 되는 일입니다. 프레임은 존 머레이를 따라 이것을 '아는 능력 자체의 새로워짐'이라 부르고, 성령의 '나타나심'(증명·입증)은 새 내용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맛봄' 같은 정서도 들어 있지만, 그것은 빛을 뒤따르는 열매이지 확신의 바탕이 아닙니다.

1. 성령은 먼저 빛을 주셔 어둠을 걷으신다
2. 성경 전체가 서로 증언함을 보게 하신다
3. 영적 감각으로 말씀을 맛보게 하신다
4. 빛이 길을 내고 열(의지)이 뒤따른다
5. 성령은 내용이 아니라 설득을 더하신다
6. 조명이 성경을 말씀으로 '만들지' 않는다

> **고린도전서 2:13**
>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함 — 성령이 주시는 판단력 (오웬)
>
>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 **히브리서 5:14**
>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감각 — 영적 감각 (오웬)
>
>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 **요한복음 7:17**
>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게 됨 ◆(오웬·프레임 41장. 바빙크는 칸트 학파가 내세운 구절로 소개하며 그 안의 진리만 인정함)
>
>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에베소서 1:17-19

마음의 눈을 밝히심 (프레임)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린도전서 2:4-5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서게 함 (프레임)

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5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옴 (프레임)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요한복음 1:14

많은 이가 예수를 보았지만 제자들만 그 영광을 봄 — 육안으로 보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님 (바빙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후서 10:5

>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성령께서는 해가 빛과 열을 내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빛이 먼저 길을 내고, 열이 뒤따른다.” — 오웬

“텍스트의 저자가 텍스트를 우리에게 열어준다.” — 프레임

📜 5.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 믿음이 기대는 공적 증거 (오웬 5장 · 바빙크 6장 · 신앙고백서 1.10)

오웬은 앞의 내적 사역이 실제로 일어나며 오류가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묻고 있는 '그 증거'는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믿음이 기대는 증거는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시는 공적 증거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닿는 모든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동의할 때 근거는 증언하는 이의 권위이거나 진리 자체의 자명함인데, 성경에서는 이 둘이 하나로 만납니다. 바빙크도 같은 방향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사역으로 스스로 참됨을 증명하고(자증), 사도들의 증언을 영감하신 바로 그 성령이 지금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인치십니다. 바빙크는 성령이 직접 증언하시는 대상이 각 책의 진정성이나 정경성이 아니라 성경의 '신성', 곧 신적 권위라고 정리합니다. 고백서 1.10의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1. 성령은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 앞에 증언하신다
2. 증언의 권위와 진리의 자명함이 하나로 만난다
3. 성경을 영감하신 성령이 지금 마음에 인치신다
4. 증언의 대상은 성경의 신적 권위다
5. 확신은 개인 소유가 아닌 교회의 공통 고백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 성경은 진리를 제 안에 가지며 권위가 거기서 나옴 (오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5:26

보혜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심 (바빙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5:6

"성령은 진리" — 성경의 권위를 보증하는 성령의 증언 (바빙크)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에베소서 1:13 · 고린도후서 1:22

성령의 인치심 — 진리를 마음에 확증하심 (바빙크)

에베소서 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고린도후서 1:22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8:25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신앙고백서 1.10)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데살로니가전서 2:13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고백서 1.4·프레임 42장)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같은 말씀 안에 성령의 증언이라는 권위와, 그분이 하신 진리 자체의 자명함이 함께 있다.” — 오웬

“옛 양피지와 새 양피지 위에 쏟아진 성령의 넉넉한 비, 그것이 내게 결론을 내려 준 삼단논법이다.” — 오웬이 감동하여 인용한 단테

“이것이 믿음의 바탕과 기초가 아니라면, 공개적으로 고백하건대 내가 아는 한 내게는 믿음이 전혀 없다.” — 오웬

📜 6. '원인'과 '근거' — 증거 90% + 성령 10%가 아니다 (프레임 42장)

프레임은 오웬이 세운 구분을 오늘의 철학 언어로 다시 정리합니다. 누가 무엇을 왜 믿는지 물을 때, 답은 '원인'일 수도 있고 '근거'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그렇게 믿게 된 까닭이고, 근거는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이유입니다. 마르크스나 프로이트처럼 종교의 기원을 설명해도 원인이 근거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누가 원 모양을 좋아해서 지구가 둥글다고 믿게 되었더라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과 그 근거는 그대로입니다. 프레임에 따르면 성령의 내적 증거는 보통 원인 쪽이고, 성경의 자증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서 1.5를 “증거가 90%, 성령이 나머지 10%”로 읽는 흔한 해석을 보완합니다. 성경 자신의 전제로 읽으면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는 1%의 확신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은 새 논증을 더하지도, 불확실한 증거를 기적처럼 확실하게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영적 무지를 걷어 이미 확실한 것을 보고 믿게 하십니다.

1. 믿게 된 까닭(원인)과 믿을 이유(근거)는 다르다

3. 성령의 내적 증거는 대개 원인 쪽이다
4. 성경의 자증이 믿음의 근거다
5. 증거는 확실하나 성령 없이는 1%도 없다

> **로마서 1:18**
> 사람은 불의로 진리를 막음 — 성령 없이는 1%의 확신도 없는 이유 ◆(바빙크·프레임)
>
>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 **시편 19:1 · 로마서 1:19-20**
> 온 세상이 하나님을 증언함 — 성경 밖 증거도 성경이 허락한 자증의 일부 (프레임 42장 각주)
>
> **시편 19: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
> **로마서 1:19-20**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령의 증거(실존적)는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의 원인이다." — 프레임

📜 7. 증거와 변증의 자리 — 앞서지 않고 뒤따른다 (바빙크 6장 · 오웬 5장 · 프레임 41장)

그렇다면 증거와 변증은 쓸모없을까요? 세 책 모두 아니라고 답합니다. 바빙크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에게 대답하는 변증을 신자의 의무로 분명히 인정합니다. 다만 바른 변증은 믿음을 뒤따르는 것이지, 계시를 먼저 증명해 믿음을 세우려는 일이

신적 성격을 보이는 근거들을 늘어놓았다고 짚습니다(바빙크가 표시한 범위는 1권 7장 4절–8장 13절). 그러면서 그런 표지들은 신자가 내놓을 수는 있어도 신앙의 근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웬도 역사적 신빙성 논증이 이성의 물음을 채우는 데 큰 힘이 있다고 인정하되, 영감이 스스로 드러나지 않으면 믿음의 기초는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프레임은 고린도 교인 대부분이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고 바울의 설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1. 변증은 신자의 의무다
2. 바른 변증은 믿음을 뒤따른다
3. 끝나지 않는 검증 위에 확신을 세울 수 없다
4. 역사 논증은 이성엔 힘, 믿음 기초론 부족
5. 고린도 교인도 설교, 곧 말씀으로 믿었다

> **베드로전서 3:15**
>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에게 대답하라 — 변증의 정당성 (바빙크)
>
>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 **디도서 1:9**
> 거슬러 말하는 자를 반박함 — 변증의 정당성 (바빙크)
>
>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 **고린도전서 15:1-12**
> 교인들은 설교로 부활을 알았음 ◆(프레임 41장·바빙크: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신실한 증언)
>
>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

고린도전서 15:14

부활이 없으면 설교도 믿음도 헛됨 — 걸려 있는 것은 복음 전체 (프레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영원이 거미줄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 바빙크

"그 논증은 사람들의 이성적인 물음을 채우는 데는 큰 힘이 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로서는 부족하다." — 오웬

📜 8. "성경이 그렇다니까 믿는다"는 순환 아닌가 —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빙크 6장 · 프레임 41·42장 · 오웬 5장)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순환논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빙크는 두 겹으로 답합니다. 일차 대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이고, 이보다 더 깊은 근거는 없습니다. 덧붙여 하나님은 예언의 성취와 부활의 증인 같은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빙크는 도덕법처럼 첫 원리는 증명되지 않고 스스로 구속력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슬림도 같은 논리를 쓰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불신 역시 마음에 뿌리박힌 것이라 증거가 어느 쪽에도 결정적이지 않으며 성령의 증언은 사적이지 않고 교회 전체의 증언이라고 답합니다. 프레임은 여기에 일종의 순환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추론과 증거를 재는 '전제'라고 말합니다. 오웬은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작품이 지은이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자기 출처를 드러내지 못하겠는가?

1. 가장 깊은 답: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3. 첫 원리는 증명되지 않고 스스로 묶는다
4. 말씀은 다른 모든 판단을 재는 전제다
5. 불신도 중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요한일서 5:9

사람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언이 더 큼 (신앙고백서 1.4)

>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15:27 · 요한일서 1:3

사도들은 보고 만진 생명의 말씀의 증인 (바빙크)

> **요한복음 15: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
> **요한일서 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로마서 1:18 이하

진리를 막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지심 — 불신도 마음의 문제 ◆(바빙크·프레임)

>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

요한복음 10:4-5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 말씀은 '알아듣는' 음성 (프레임 41장)

> 4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 5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성경은 자증적(αὐτόπιστος)이고, 따라서 신앙의 최종적 근거다." —

"거의 모든 만드는 이가 작품에 제 흔적을 남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그 출처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 오웬

📜 9. 느낌이 식어도 — 경험·위로·의심의 자리 (바빙크 6장 · 프레임 41장)

이제 이 편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바빙크는 확신의 근거를 경험에 둔 슐라이어마허와 프랑크를 검토한 뒤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경험은 말씀이 일으키는 것이고, 믿음을 앞서지 않고 뒤따르며, 늘 성경으로 바로잡혀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믿습니다"를 "경험합니다"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는 종교의 면류관이지만 참됨의 증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빙크가 확신을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확신은 건강처럼 믿음의 정상 상태이고, 옛 사람과 싸우는 와중에도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앙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증거입니다. 프레임은 '확신의 원뿔'로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스도, 부활 같은 꼭대기의 확신이 있고 바닥에는 열린 질문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계시를 의심하는 것은 싸워야 할 죄이지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확신은 기도·성례·가르침·순종을 통해 자랍니다.

1. 경험은 믿음을 뒤따르고, 말씀이 경험을 잰다
2. 위로는 면류관이지 참됨의 증명이 아니다
3. 확신은 믿음의 정상 상태다
4. 싸우면서도 믿는 것이 선물의 증거다
5. 확신엔 정도가 있고, 방향은 위로 간다

> **이사야 8:20**
> 경험의 기준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 (바빙크) — 2절의 기둥 구절
>
>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히브리서 10:22

온전한 믿음의 확신 — 확신은 신앙의 본모습 (바빙크)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6:18-19

약속과 맹세가 영혼의 닻 (프레임. 바빙크는 히브리서 6:11-12를 듦)

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요한일서 5:13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 — 신자는 확신으로 출발함 (프레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9:24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 불신앙을 이겨 가는 여행 (프레임)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마태복음 14:31

“왜 의심하였느냐” — 의심은 믿음의 반대 ◆(바빙크·프레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야고보서 1:6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음 ◆(바빙크·프레임)

>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신명기 29:29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함 — 모름을 인정하는 것은 죄가 아님 (프레임)

>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오웬	아니다. 성령의 증거는 귓속말도 이유 모를 고집도 아니고, 마음을 밝혀 받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공개적으로 증언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일의 두 겹 (마음/말씀), 빛과 열, 공적 증거	경험·위로 같은 근대적 대안, 확신의 정도와 일상의 의심 — 바빙크·프레임이 메운다
신앙고백서	성경의 증거는 넉넉하지만, 온전한 확신은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	증거와 성령을 함께 붙드는 균형, 새 계시 배제(1.6),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1.10)	성령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증거와 확신의 관계 — 오웬·프레임이 메운다
바빙크	확신의 근거는 증명도 경험도 도덕적 만족도 아닌 성령의 증언이다. 성경은	지성·감정·도덕의 세 길 검토, 증언의 교회적 성격, 증언의	확신의 정도를 그리는 실천적 그림 — 프레임이 메운다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이며, 느낌은 믿음을 뒤따른다.		
프레임	성령의 내적 증거는 믿음의 원인이고 성경의 자증은 근거다. 증거는 확실하지만 성령 없이는 1%도 없으며, 확신은 자란다.	원인/근거 구분, '90%+10%' 읽기의 보완, 확신의 원뿔, 의심의 구분	열광주의·로마 교회와의 역사적 논쟁 — 오웬·고백서가 메운다
워필드	이 편의 재료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장이 없음 — 오웬·바빙크·프레임이 메운다.	—	변증의 자리를 두고 워필드와 다른 이들의 강조가 달랐다는 점은 정리본들에서 '확인 필요'로만 언급됨

고백서는 한 문장으로 뼈대를 줍니다. 증거는 넉넉하지만 확신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웬은 그 문장을 풀어, 성령의 일을 '마음을 여심'과 '말씀 안의 공적 증거'로 나눕니다. 프레임은 같은 구조를 '원인과 근거'라는 말로 옮겨, 증거를 깎지도 성령을 덧칠로 만들지도 않게 합니다. 바빙크는 이 확신이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모든 세대 교회의 증언이며, 경험과 위로는 믿음을 뒤따를 뿐이라고 못 박습니다. 다섯 책의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확신의 근거는 말씀 안에 있고, 확신을 일으키는 분은 성령이시며, 느낌은 그 열매입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성경이 교회나 사람의 보증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낸다는 성질.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일하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확신하게 하시는 일.

조명
성령께서 죄로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 이미 주어진 말씀을 알아보고 깨닫게 하시는 일.

공적 증거 / 사적 증거
공적 증거는 말씀이 닿는 모든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증거이고, 사적 증거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는 음성이나 느낌이다.

열광주의
성경 밖에서 직접 받았다는 내적 빛이나 음성을 신앙의 근거로 삼는 태도.

원인과 근거
원인은 내가 어떤 것을 믿게 된 까닭이고, 근거는 그 믿음이 참이라고 뒷받침하는 이유다.

전제
다른 모든 생각과 증거를 판단하는 맨 밑바닥 기준. 개혁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둔다.

변증
공격에 맞서 신앙을 설명하고 변호하는 일. 믿음을 뒤따르며 믿음보다 앞서지 않는다.

주관주의
진리의 기준을 내 경험이나 느낌, 의식에 두는 태도.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성령의 증거는 귓속말도, 이유 모를 고집도, 지나가는 감정도 아니다.
- 성령은 어두운 마음에 빛을 주셔 눈을 여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모든 사람 앞에 증언하신다.
- 믿음의 근거는 말씀 자체(자증)이고, 믿음을 일으키는 분은 성령이시다. 둘 중 하나도 빠질 수 없다.
- 증거와 변증은 소중하지만 믿음을 뒤따르며, 경험과 위로는 믿음의 열매이지 척도가 아니다.
- 그래서 '믿어진다'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봄이다. 열린 눈으로 이미 비치고 있는 빛을 보는 것이다.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오웬 · 5장 성령의 증거 · 전통 · 기적
- 신앙고백서 · 1장 성경에 관하여 (10절, 1647 영문)
- 바빙크 · 6장 신앙
- 프레임 · 확신
- 프레임 · 사람을 통한 계시: 신적 증거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